

## 철로변 쇠퇴 주거지 내 독거 노인의 사회 지지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

### “희(喜)스토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김세영

### I. 프로그램 실시 배경

부산진구 지역의 개금3동 철로변은 부산의 중심 지역에 있으나, 저소득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고 철길 때문에 마을이 고립되어 있다. 철로변 지역은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범죄에 취약하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로 접근하는 동선이 열악해 철로변 거주지의 청년층이 빠져나가고,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이동이 어려운 노령층이 다수 거주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 철로변 주거지에 거주하는 노년층 다수는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현 거주지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느낀다. 이는 무기력함과 우울감을 유발하며 이웃 관계를 악화시킨다.

이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 속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웃 간의 공감과 사회 지지 체계 형성을 기반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철로변 주거지 내 거점 지역에서 미술 공예, 음악 등을 매개로 삼아 과거 회상, 회상 공유를 통해 참여자의 우울감을 줄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차 여행, 이웃과 함께 먹거리 나누기, 철길 마을 시화전을 시행하여 사회적 지지망 강화,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감소라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프로그램 개요

#### 1. 목적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높은 철로변 쇠퇴 주거지 내 독거 노인이 이웃 간의 공감과 관계망을 기반으로 사회 지지 체계를 형성해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기를 마련한다.

#### 2. 목표

목표 1. 회상 공유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목표 2.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한다.

목표 3. 사회 지지 체계 강화를 통해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목표 4. 철로변 거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 3. 프로그램 대상

대상 구분	산출 근거	인원 수
주된 참여자	철로변 쇠퇴 주거지(개금3동 9, 8, 10통)에 거주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독거 어르신	19명
주변 참여자	주된 참여자가 본 사업에 초대된 이웃, 철길 마을 캘린더·철길 시화전에 참여한 지역 주민	198명

### III.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 1.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참여자 모집	1~3월	3회	·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활동 · 프로그램 참여 희망 또는 필요한 세대 방문, 상담 후 선정	· 지역 주민 대표(통장,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의 참여자 추천 · 본 복지관 독거 노인 자살 예방 사업 gatekeeper(희망 지킴이)의 참여자 추천 · 추천 세대 1:1 가정 방문, 상담 및 프로그램 홍보, 안내	
경로당 협약식	3월	1회	· 마을 내 접근이 용이한 거점 지역으로 경로당 선정 · 장소 협조에 대한 협약식 진행	· 경로당 대표(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사업 설명 및 안내 · 경로당 대표를 통한 장소 대여에 대해 경로당 회원들의 협조 요청 · 장소 대여 및 복지 서비스 세대 추천 등의 협약서 체결	
회상 공유하기	(만들어) 보古	3~5월	15회	미술 공예를 통한 회상 공유	한지 공예, 짚풀 공예, 손뜨개 공예 등 어르신들이 과거 익혔던 작업을 재현해 이를 회상하고 관련된 추억과 감정을 참여자들이 공유
	듣古	6~7월	4회	음악을 통한 회상 공유	· 옛 음악 디방 디제이 방식 · 생애 주기별로 당시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와 관련된 음악을 신청하면 음악 기기로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
	말하古	8~11월	8회	삶, 마을의 이야기를 통한 회상 공유	· 마인드맵과 압화를 활용,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시화(花)로 표현 · 우리 마을에 대한 추억과 감정을 한 줄 시로 표현하고 참여자 간 공유

프로그램	일정	횟수	세부 내용	수행 방법	
이웃과 함께 나누기	주된 참여자	3~7월	7회	주된 참여자 간의 지지망 강화를 위한 먹거리 나눔 활동	· 매월 2회 함께 만들어 먹고 싶은 먹거리를 참여자 간에 선정함. · 담당 복지사가 식재료를 준비하면 참여자 간에 식기구, 조미료를 분담하여 준비함. · 준비한 재료로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 나눠 먹고 소감을 공유함.
	주변 참여자	8~12월	9회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 확대를 위한 먹거리 나눔 활동	· 마을 내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고 주변 이웃에게 먹거리를 나눠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함. · 총 9회 중 7회는 이웃을 경로당에 초대하여 먹거리를 함께 나누어 먹고, 2회는 이웃 가정에 방문하여 먹거리 나눔 활동을 진행함.
기가 차게 즐거운 여행	주된 참여자	5월	1회	주된 참여자 간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기차 여행	철로변 주거지의 기차 소음 탓에 생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도록 기차 여행을 진행함.
	주변 참여자	10월	1회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 확대를 위한 기차 여행	·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초대할 이웃 중, 기차 여행을 희망하는 이웃과 함께 동행함. · 주변 참여자 선정 및 여행 장소, 식사 메뉴 등은 주된 참여자 간에 협의 후 진행함.
내 이웃의 재발견	4월	1회	재능 기부 형식의 일일 감사 활동	참여자가 가진 노하우(손뜨개)를 이웃에게 알려주는 일일 감사 활동을 진행함.	
철길 마을 시화전	12월	1회	철길 마을 시화전 개최	희상 공유하기 프로그램의 공예 작품과 시화(花) 작품을 지역 내 거점지인 경로당에 전시, 지역 주민 누구나 관람하게 함.	
철길 마을 캘린더	12월	1회	2017년 캘린더 제작 및 배포	철길 마을 시화전에 전시한 참여자 작품을 2017년 캘린더로 제작해 지역 내 무료 배포함.	
평가회	12월	1회	1년간의 활동 내용을 돌아보고 참여자 간 소감을 공유	· 월별 활동 사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나누기 · 본 사업에 대한 사후 척도 검사 및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욕구 조사 실시	

## 2. 과정 평가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참여자 모집	20명	19명	· 안내지, 현수막 부착만으로는 프로그램 목적을 전달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지역 주민 대표(통장,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의 협조로 어르신 모임과 각 가정(70세대)을 방문해 홍보하면서 프로그램 의미와 목적을 전달하기 쉬워졌음. · 대면 홍보·상담을 진행한 어르신 중 우울감을 느끼는 독거 노인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우선 순위로 선정함.
경로당 협약식	1회	1회	·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러워 함. 이에 경로당과의 협약을 거쳐 일정 시간대에 장소를 빌려 프로그램을 진행함. · 경로당과의 협약으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고 관심을 유도하면서 참여자 수가 증가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희상 공유하기	(만들어) 보古	10회	12회	· 초기 모임에서 참여자 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방법으로 미술 공예 희상 공유 프로그램("만들어 보古")을 실시함. · 전통 공예품을 만들면서 떠오르는 추억과 경험에 대해 부담 없이 대화하는 모습,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확인하였음.
	듣古	10회	4회	생애 주기별 음악을 듣고 회상을 유도하고자 했으나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후 노래 교실처럼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 희상 요법과 노래방 기기를 활용한 음악 다방 디제이 방식을 구현함.
	말하古	8회	8회	·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 살아온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써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하고자 했으나, 참여자 대부분이 시 쓰는 일에 대한 부담을 느껴 프로그램 진행에 한계가 있었음. · 자문 내용을 반영해 글쓰기 위주의 활동보다는 초기 참여자들이 흥미를 느꼈던 미술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고, 시 창작은 부수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시로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참여자들이 자신이 만든 미술 작품에 한 줄, 두 줄씩 점차 글을 넣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본 세부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작품은 철길 마을 시화전에 전시했으며 철길 마을 캘린더로도 제작해 주변 이웃들에게 배포함.
이웃과 함께 나누기	주된 참여자	4회	7회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논의하고 조리에 대한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참여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주변 참여자	6회	9회	· 초대할 이웃, 먹거리, 준비 물품 등을 참여자 간에 논의하고 진행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수행함. · 먹거리 나눔으로 주변 이웃과의 관계망을 확장함. · 총 46명의 이웃에게 나눔 활동을 실천함. - 8월 : 9명(경로당에 초대하여 콩국수 나누기) - 9월 : 5명(경로당에 초대하여 만둣국 나누기) - 10월 : 5명(각 가정에 방문하여 모과청 나누기) - 11월 : 19명(각 가정에 방문하여 김장 김치 나누기) - 12월 : 8명(경로당에 초대하여 팔죽 나누기) · 초대할 참여자 중 4명은 일반 사례 관리가 필요한 세대로 판정됨에 따라 복지관 내부에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 · 식사 초대 등 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더불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세대를 발굴·연계하는 매개 활동이 이뤄짐.
기가 차게 즐거운 여행	주된 참여자	1회	1회	· 참여자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8통과 10통 참여 집단이 함께 기차 여행을 다녀옴으로써 참여 집단 간의 소통을 유도함. · 즐거운 경험과 추억을 통해 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함.
	주변 참여자	2회	1회	· 기차 여행 장소, 식사, 동행할 이웃 등을 참여자들이 논의하고 일부 계획하도록 하여, 나들이의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 역할을 맡도록 함. · 이웃과 함께 나누기에 참여한 이웃을 포함해 기차 여행을 희망하는 이웃 9명과 함께 동행함. · 주변 참여자와의 관계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내 이웃의 재발견	4회	1회	1회	"만들어 보古" 세부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손뜨개 공예 활동 이후 남은 재료를 활용해, 주변 이웃에게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함.

프로그램	목표량	산출량	평가 결과
철길 마을 시화전	1회	1회	· 철길 마을 시화전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갖게 유도함. · 철로변 내·외부 지역 사회 구성원이 철길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계기가 됨.
철길 마을 캘린더	1회	1회	· 향후 마을 공동체 활동 진행의 발판을 마련함. · 참여자의 작품 및 활동 사진을 2017년도 캘린더로 제작하여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상기하도록 함. 또한 이는 다음 연도 활동에 대한 강화물이 되었음.
평가회	1회	1회	· 참여자 활동 사진을 통하여 당시 감정을 상기하고 참여자 간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함. · 모든 참여자가 차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함을 확인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함.

### 3. 효과 평가

성과 목표 1.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회상 공유를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 우울감 변화 정도 · 프로그램 만족도	·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 과정 기록지 · 만족도 조사지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만족도 설문 조사 ·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b>평가 결과</b>			

· 양적 평가  
- 노인 우울 척도 분류 방법 : 14~18점은 경도 우울증, 19점~21점은 중도 우울증, 22점 이상은 심도 우울증.  
- 총 19명의 참여자 중 최초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KGDS)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함.  
- 조사에 응답한 16명 중 13명은 사전 조사 대비 1~7점의 차이로 우울감 감소를 보였으며, 3명은 변화가 없었음.  
- 사전 검사 시 7명은 경도의 우울증, 3명은 중도의 우울증, 2명은 심도의 우울 증상이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 시 5명은 경도의 우울증, 1명은 중도의 우울 증상으로 참여자의 우울감이 변화하였음.  
- 사전 검사 시 경도 우울증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던 4명 중 2명은 사전 검사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2명은 변화가 없었음.  
- 경도 우울증을 가진 A구성원은 사전·사후 동일 점수로 우울감에 변화가 없었음.  
- 해당 세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19명 모두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함.  
· 질적 평가(프로그램 관찰 내용)  
- 참여자들은 회상 공유 세부 프로그램 진행 중에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고 예전에 익혔던 기술을 다시 재현하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표현함. 프로그램 과정 중 참여자들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한 뜨개질을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나니 잠이 잘 오더라, 옛날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뜨개질 했던 기억도 났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만의 재미있는 추억이 있다, 과거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기차길 지나가는 다리에 이부자리를 챙겨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잠을 자곤 했던 기억이 난다" "혼자 하면 재미없는 일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확인함.

성과 목표 2.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이웃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한다.	· 사회적 지지 체계 변화 정도 · 프로그램 만족도	· 사회적 지지 척도 · 과정 기록지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만족도 조사지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만족도 설문 조사 ·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b>평가 결과</b>			

· 양적 평가  
- 사회적 지지 척도 해석 방법 : 총점 범위 25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에 관해 사전·사후 비교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 변화 정도( $t=-7.616$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척도는 평균 54.94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70.88점으로 평균 15.94점 높아짐. 이로써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해당 세부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19명 중 1명(세부 프로그램인 기차 여행 불참으로 무응답함)을 제외하고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라 응답함.  
· 질적 평가(인터뷰, 프로그램 관찰 내용)  
- 프로그램 관찰 내용 중 "혼자서 밥을 먹으면 이 맛이 안 난다, 매일 이웃과 모여서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이 즐겁다" "아들이 매년 가을이 되면 감을 보내주는데 회원들과 나눠 먹고 싶어 가지고 왔다" 등의 대화로 미뤄보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임.  
- 프로그램 전후로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얼굴만 알던 지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다" "이바구(이야기)가 잘 통하고 손톱에 봉숭아물도 들어 주는 이웃이 생겼다"는 답변을 통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확인함.

성과 목표 3.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사회 지지 체계 강화를 통하여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킨다.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변화 정도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사전·사후 설문 조사 ·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b>평가 결과</b>			

· 양적 평가  
-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해석 방법 : 총점 범위 30점에서 120점으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변화에 관해 사전·사후 비교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 변화 정도( $t=5.094$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 프로그램 실시 전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 척도는 평균 74.56점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65.63점으로 평균 8.93점 감소함. 프로그램 실시 전후 참여자의 정서적 및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질적 평가(인터뷰 내용)  
-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함.  
- "이전에는 홀로 TV 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 "늙어 갈수록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다. 나에게 보고가 생겼을 때 걱정해주고 찾아와줄 이웃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된다."

성과 목표 4.	평가 지표	측정 도구	평가 방법
철로변 거주 지역 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마을에 대한 인식 변화	·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 과정 기록지	인터뷰, 관찰 기록을 통한 질적 평가 분석
<b>평가 결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적 평가</li> <li>- “우리 마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마을을 위한 활동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니 이게 마을을 위한 활동이구나 하고 기쁨을 느꼈다”고 답변함.</li> <li>- 세부 프로그램 중 ‘마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참여자들과 함께 마인드맵으로 꾸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로 “이웃, 나눔, 마음, 인정, 우애, 양보, 사랑” 등을 말하는 모습에서, 마을에 대한 참여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ul>			

## IV. 사업 성과

### 1. 관계 중심의 접근법을 통한 노인 우울감 해소

본 사업은 우울감을 느끼는 철로변 거주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참여한 어르신 대부분은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집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망이 약했고, 이로 인해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 지지망 강화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해 철로변 내 독거 노인의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 간의 관계 변화에 중점을 두었고, 강화된 이웃 관계가 개인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그들만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를 강화하여 이웃 간의 연대 의식을 고취했다.

### 2.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

본 복지관은 영구 임대 아파트 내에 위치해 철로변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은 복지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약 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거점 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마을 내로 이동해 지역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르신이 접근하기 용이한 경로당을 거점으로 삼고, 이웃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는 장으로 활용했다. 이를 계기로 경로당이라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창구를 개발함으로써, 복지관의 다양한 자원을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 3. 철로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공감대가 있는 철로변 거주 어르신들은 본 사업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이웃을 대상으로 나눔과 기여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소외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 마을 행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차후 마을 공동체 활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V. 향후 계획

다음 연도에는 낙후 지역으로 인식된 철로변의 부정적 이미지를, 주민들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마을 이미지로 바꾸고자 한다. 철길 마을에 대한 철로변 내·외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해 마을 내 나눔 활동을 꾸준히 확산하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마을 외부 구성원과의 교류를 돕고자 한다. 이에 철로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스스로 자조적 역할을 수행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